

하늘이 내린 큰 복

洪天
福賜

明慧期刊 제149기





▲캐나다의 토론토 대법제자들이 리홍쯔(李洪志) 사부님께 을사년 중추절 문안 인사 올리는 모습.

목차 CONTENTS

권두일문	1	달을 바라보며 떠오른 생각
독후감	2	미혹의 세상에 주는 하나의 각성제
길성고조 (吉星高照)	4	외조카가 일자리 찾고 새로운 희망이 생겨
절체절명에서 살아나	6	75세에 위암 진단, 95세에도 건강해
세상을 이롭게	7	남편이 ‘백폐’에서 회복하고 전염병 고비를 넘기다
평안을 얻는 길	8	베트남 명의(名醫), “파룬궁이 새 생명을 주었다”
아는 것이 복	10	6년 동안 괴롭힌 만성 장염이 사라지다
향간여론	12	94세 캐나다 노인의 활력 비결
	14	유럽 정치인들, “진선인(真善忍)은 매우 중요하다”
	17	한의학사가 전하는 건강과 수양 비결
	20	4억 5천만 중국인, “삼퇴(三退)”로 평안을 찾다
	22	저명한 박사의 갑작스러운 죽음 — 슬픔과 깨달음
	26	뉴턴은 왜 신의 존재를 확신했는가
	28	“걸어치워라! 국민을 속이려는 자작극이잖아!”
	29	식당의 변화, 손님이 몰려든 이유



달을 바라보며 떠오른 생각

‘상월(賞月)’은 상고시대 ‘제월(祭月)’에서 시작하여, 당나라 때 성행하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 달은 언제나 중추절(한가위)의 핵심 주제였다. “지금의 사람은 옛날 달을 보지 못하지만, 지금의 달은 옛사람도 비추었다.” 높이 걸린 밝은 달은 밤을 비출 뿐만 아니라, 인간의 풍부한 영감과 무궁한 사유, 그리고 탐구 열망을 불러일으켰다.

1969년 7월 20일, 미국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은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디뎠다. 지금까지 전 세계 수백 명의 우주인이 우주를 여행했다. 장엄한 은하와 정밀하고 질서정연한 천체의 운동을 직접 눈으로 본 많은 우주인은 우주 어딘가에 더 높은 지적 생명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사실 뉴턴과 아인슈타인, 두 위대한 과학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주의 조화롭고 질서 있는 구조에 깊이 감탄했다. 뉴턴은 우주의 정묘한 설계가 곧 조물주의 걸작이라고 보았다.

현대의 유전자 과학도 비슷한 발견을 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이끈 미국 유

전학자 프랜시스 콜린스는 인류 DNA의 92%를 해독한 후, 생명의 암호가 지닌 정묘한 설계를 마주하며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나는 신의 지문을 보았다.” 결국 그는 자신이 믿어온 무신론을 완전히 버렸다.

중국의 불가(佛家)와 도가(道家) 수련 문화는 광대하고 심오하여, 우주·생명·시공에 대한 통찰이 아직 다른 차원을 돌파하지 못한 현대 과학보다 훨씬 깊다. 파룬궁 창시인 리홍쯔(李洪志) 대사가 발표한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인류 사회는 왜 미혹(迷)의 사회인가》를 읽어 보길 권한다. 오늘날의 우주와 인류에 관한 중대한 변화 등 수많은 천기가 인류에게 처음으로 밝혀져 있다.

계수꽃 향기 흠날리고, 밝은 달빛이 하늘 가득한 이 밤,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차분히 생각해보자.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왜 이 세상에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늘이 내린 큰 복’ 편집부

2025년 9월 23일

리홍쯔 선생이 전 인류를 위해 발표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왜 중생을 구도하려 하는가》 《인류사회는 왜 미혹(迷)의 사회인가》

▲ 리홍쯔(李洪志) 선생은 일련의 글을 발표하여 인류의 기원, 삼계(三界), 그리고 우주의 미혹(迷)을 밝혀냈으며 구구절절 천기를 담고 있다.

미혹의 세상에 주는 하나의 각성제

글/ 린단(林丹)

중국 교육·훈련 분야에 종사했던 자이더윈(翟德云) 씨는, 리홍쯔(李洪志) 대사의 글 《인류사회는 왜 미혹(迷)의 사회인가》



를 읽은 후, 마음이 트이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했다. 그는 인류사회가 ‘미혹’된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었고, 혼란스럽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자이더윈 씨는 중국에서 기계설계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국가 자격을 갖춘

수학과 물리 교사가 되었으며, 교육 훈련 기관도 운영했다. 이러한 직업적 배경 때문에 그는 중국 청년들의 현실에 특히 관심이 많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중국 경제가 좋지 않아 많은 젊은이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실업자가 됩니다. 자신이 실패자이고 무능하다고 여기며, 모든 책임과 결과를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곤 합니다. 이는 비극입니다.”

자이더윈 씨는 젊은이들에게 리 대사의 이 글을 꼭 읽어보라고 권했다. 그는 “읽고 나면 사람의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약육강식’의 정글 법칙에 속지 말고, 고통 속에서도 선행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류사회는 왜 미혹(迷)의 사회인가》라는 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인류는, 지혜가 가장 작고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없는 ‘미혹 중(迷中)’에서 생존하고 있다. 이는 말후(末後) 모조리 멸망하기 전에 중생을 구도하려는 창세주의 창거(創舉)이다. 역시 중생들이 무명(無明)의 고통스러운 세간에서 인성의 선량함에 의거하여 걸어 나오게 하려는 데 있다.”

자이더윈 씨는 이 글이 “사람을 구하는 글”이라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에게 미혹의 세상 속에서 각성을 주는 약과 같다”고 했다. 이어 그는 말했다. “이 글은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실령 앞이 보이지 않는 깊은 밤, 미혹 같은 어둠 속에 있더라도, 인간성 속의 선량함을 지키고 있다면 결국 길을 찾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자이더윈은 또 깨달았다고 했다. “인간 자체가 본래 고통스러운 것이며, 그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 죄업을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이해했다. “리 대사께서 쓰신 이 미혹은, 내가 겪는 고통과 무능함, 지혜 없음이 정상임을 알려 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다. 무엇이 사악한 것이고, 무엇이 선량한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리 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생 속에서 정념에 의거하여 선량한 본성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은 평탄하지 않다. 전쟁이나 질병 같은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자신의 선을 지켜나가는지이며, 결국 창세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다.



파룬궁은 중국에서 줄곧 합법적이다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은 국제 인권 규약을 위반할 뿐 아니라, 중공 스스로 제정한 헌법과 법률에도 위배된다. **첫째**, 중국 현행 헌법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둘째**,公安부가 2000년과 2005년에 각각 발표한 공문(공통자 [2000]39호, 공통자 [2005]39호)에서, 이들이 규정한 14종의 사교(邪教) 명단을 공표했는데, 그 안에 파룬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셋째**, 2011년 중국 국무원 신문출판총서가 내린 제50호 명령은 이미 파룬궁 출판물에 대한 금지령을 명확히 폐지했다. 따라서 중국에서 파룬궁을 수련하거나 파룬궁 서적을 소장하는 것은 모두 합법이다.



외조카가 일자리 찾고 새로운 희망이 생겨

글/ 정신(淨心 중국)

나의 외조카는 대학원 졸업 후 줄곧 일 자리 찾고 있었다. 각종 과외 학원을 다니며 이것저것 시험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언니는 아들을 공무원 시험에 합격시키려고 수십만 위안을 들여 인맥을 동원했지만, 계속 면접에서 떨어졌다. 외조카는 날마다 아버지에게 ‘못난 놈’이라며 꾸중 들었다.

정의를 위해 공정한 말을하다

2022년 가을, 외조카가 다니는 학원은 우리 집과 가까워서 가끔 우리 집에서 지내곤 했다. 나는 그에게 파룬궁 진상을 이야기해 주었고, ‘텐안먼 분신자살 사건’이 조작된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리며, ‘삼퇴’(중공의 당·단·대 조직 탈퇴)를 권해 평안을 지키라고 했다. 외조카는 듣고 깨달아 가입했던 당·단·대를 모두 탈퇴해 달라고 했다.

어느 날, 학원 선생님이 중공의 거짓 선전에 중독되어 수업 중 ‘텐안먼 분신자

살’ 사건을 그대로 반복하며, 직장에서 파룬궁을 수련하는 동료를 고집불통이라며 조롱했다. 많은 학생도 이에 동조했다.

그때 외조카가 선생님께 말했다. “‘텐안먼 분신자살’은 가짜잖아요. 누가 자기 몸에 불을 질러요? 너무 아프잖아요!” 선생님이 말했다. “어떻게 가짜일 수 있니? 중앙TV에서 방송했는데, 가짜일 리 있냐?” 외조카가 다시 말했다. “선생님, 그럼 선생님 직장에서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 자살 분신했나요?” 선생님이 대답했다. “없어.” 외조카가 말했다. “그럼 됐잖아요. 파룬궁수련자가 분신했 리 없다는 거잖아요.”

외조카는 집에 돌아와 나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다. 나는 기뻐하며 말했다. “얘야, 네가 많은 사람 앞에서 대법을 위해 바른말을 했구나. 이제 큰 복을 받게 될 거다. 좋은 일자리를 찾는 건 문제가 안 될 거야!”

뜻밖에 좋은 일자리를 얻다

2023년 새해가 지나고, 외조카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 그는 초등학교 교사 시험을 봤는데 떨어져서 낙담했다고 말했다. 또 대학 지도원 자리에 지원했는데, 틀림없이 떨어질 거라고 했다. 그는 또 아버지가 날마다 자신을 욕한다며, 지금 일자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나는 그에게 대법 사부님이 새로 발표하신 경문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며, 정성껏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안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우며 대법 사부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권했다. 그러자 외조카가 말했다. “이모, 경문에 복덕을 쌓지 않으면 신께 도움을 구해도 소용없다고 쓰여 있잖아요.” 내가 말했다. “대법이 박해받고 있을 때 네가 사람들 앞에서 대법을 위해 바른말을 해 준 건 의로운 행동이므로 큰 덕을 쌓은 것이야. 그러니 복이 반드시 올 거야.”

그 대학 지도원 면접 때, 다른 대학원생들은 모두 자신이 보조교사나 학생회 간부, 단 간부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오직 외조카만 “없다”고 답했다. 외조카가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에게 크게 혼났다. “애야, 넌 왜 이렇게 바보 같니? 다들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너도 그냥 있다고 하지 그랬니!” 가족 모두 이번 면접도 또 물 건너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2023년 3월 10일, 외조카가 갑자기 전화했다. “이모, 제가 지원한 그 학교에서 출근 준비하라고 연락 왔어요!” 나는 즉시 축하했다.

외조카는 마치 꿈을 꾸는 듯 어리둥절해하며 말했다. “면접 본 다른 대학원생

들은 다 화려한 이력과 경험이 있는데, 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뽑고 그들을 떨어뜨렸을까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이모, 왜 저를 뽑은 거죠?” 내가 말했다. “그게 바로 네게 복이 온 거야! 신이 너에게 내려주신 거란다. 이제 믿어지지?”

지금 중국에서 취업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외조카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얻었다. 언니와 형부는 무척 기뻐하며, “꿈에도 생각 못 했다”고 말했다.





75세에 위암 진단 95세에도 건강해

[중국 투고] 2005년 추석 전 어느 날, 갑자기 아주버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고, 가능한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추석이 지나면 바로 입원하겠다”고 말했다.

남편과 함께 아주버님을 찾아가 위로하며 나는 말했다.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는 사람을 구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파룬궁 진상을 설명하며, “지금부터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마음속으로 외우세요.”라고 권했다.

나는 아주버님에게 당부했다. “수술대에서 계속 아홉 글자를 외우세요. 대법을 100%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에 대한 강한 열망 때문에 아주버님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아주버님이 퇴원해 우리에게 수술 당일의 일을 말해 주었다. “수술

실에 들어가 수술대에 눕자마자 나는 계속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라고 마음속으로 외웠어. 마취가 돌기 전까지 계속 외우다가 정신이 혼미해졌지.”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이 돌아오는 데, 의사들이 ‘이상하네, 왜 없지?’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 암덩어리가 사라졌다는 걸 바로 알았지. 그때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 그래서 계속 그 아홉 글자를 외웠지.”

“수술이 끝나고 병실로 옮겨졌는데, 의사가 말하더군. ‘수술은 하지 않았습시다. 그냥 다시 꿰맸어요. 상처가 아물면 간단히 항암치료만 하면 됩니다.’라고 말이야.”

2006년 설 이후, 아주버님은 스스로 파룬궁의 다섯 가지 공법 동작을 배우고 수련하기 시작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파룬따파는 정말 사람을 구하는 법입니다.”라고 했다. 아주버님의 가족과 친지 모두가 그 기적 같은 변화를 직접 목격했다.

올해 아주버님은 95살이 되었다. 몸은 건강하고, 머리도 또렷하며, 마음도 밝다. 어느 날 시장에서 배추 두 포기를 샀는데 10kg 넘었다. 아주버님은 양손에 하나씩 들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남편이 '백폐'에서 회복하고 전염병 고비를 넘기다



[중국 투고] 2023년 5월 31일, 남편이 코로나에 감염됐다. 고열이 계속 내리지 않고 숨쉬기도 어려워 병원에 가보니, 폐의 80%가 하얗게 변해 있었다.

의사는 나에게 말했다. “폐가 이렇게까지 하얗게 되면 회복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남편은 산소호흡기를 한순간도 뗄 수 없었고, 음식도 먹을 수 없었다.

입원한 지 닷새째 되던 날, 남편은 물 한 모금도 삼키지 못했다. 입안에는 심한 궤양이 생겨 수액으로만 연명할 수 있었다. 게다가 원래 앓고 있던 고혈압과 심장병 같은 기저질환도 급격히 악화하여, 의사들은 방법이 없다고 했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요. 어서 ‘파룬파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파파는 좋습니다), 찼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우세요. 오직 대법 사부님만이 당신을 구할 수 있어요.” 다행히 남편은 정신이 아직 또렷

했고, 마음속으로 아홉 글자를 조용히 외우기 시작했다. 남편은 파룬궁을 수련하지는 않았지만, 파룬궁이 좋다는 것을 알고 나의 수련을 지지해왔다. 한 번은 그가 주민센터 야간 근무를 할 때, 파룬궁을 비방하는 7~8m 길이 현수막이 새로 걸린 것을 보고는 몰래 그것을 떼어내 태웠다. 또 자주 나를 도와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그 일들이 떠올라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대법 사부님께 남편을 구해달라고 빌었다. 남편은 곧히 잠이 들었고, 깨어났을 때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기운이 돌아온 그는 스스로 퇴원을 요청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남편은 리홍쯔(李洪志)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계속 들으며, 진심으로 ‘파룬파파하오, 찼싼런하오’를 외웠다. 보름 뒤, 병원에서 재검을 받았다. 의사는 놀라며 박수를 쳤다. “완전히 나았어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남편은 건강을 유지하며 잘 지내고 있다. 



베트남 명의(名醫) “파룬궁이 새 생명을 주었다”

글/ 후이광(慧光)

▲ 베트남에서 널리 알려진 심장 전문의 레 티 탄타이

레 티 탄타이(Le Thi Thanh Thai)는 은퇴 전까지 호찌민시 초레이병원(Đại Thuyền Võ, Chợ Rẫy Hospital)의 심장 내과 과장을 지냈으며, 베트남 심장학회의 창립자이자 최고 수준의 심장병 권위자였다. 수많은 학술 논문을 발표했고, 많은 우수한 심장 전문의를 길러냈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한계 앞에서, 정작 자신의 심장병은 고칠 수 없었다.

수술 후 거부반응

2014년 7월, 레 박사는 해외의 한 선진 병원에서는 심장판막 교체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수술 후 상태가 매우 나빴다. 석 달 넘게 고열이 계속되었고, 이식된 심장판막이 몸에서 계속 거부반응을 일으켰다.

설상가상으로, 곁을 지켜주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충격으로 정신은 완전히 무너졌고, 침대에 누운 채 모든 희망을 잃었다. ‘이제 곧 저세상에서 남편을 만나겠지...’

의사 친구가 소개한 파룬궁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은 그녀에게 또 한 번의 길을 열어주었다. 오랜 친구 투(Thu) 박사가 병문안을 왔다. 투 박사 역시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학 전문가로, 캄보디아 왕실과 고위 관료들의 의료를 맡았던 명의로 알려져 있었다.

투 박사는 레 씨에게 중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 수련법인 파룬궁을 소개하며 말했다. “파룬궁이 내 병을 기적처럼 낫게 해 주었어요.”

레 씨는 친구의 병을 잘 알고 있었다. 투 박사는 20년 넘게 신경계 질환으로



고생했고, 류머티즘 관절염까지 앓아 무릎 통증이 심했다. 그런데 그녀는 파룬궁을 수련한 지 두 달 만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사라졌다고 했다.

투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다리를 굽히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파룬궁의 다섯 가지 공법을 모두 무리 없이 하고, 가부좌도 전혀 문제없어요. 파룬궁의 주요 서적인 ‘전법륜(轉法輪)’과 녹음 자료들을 가져왔어요. 배우고 싶으면 지금 바로 가르쳐줄게요.”

레 씨는 문득 12년 전을 떠올렸다. 그 때 그녀의 동료 토이 투 타이(Thoi Thu Tai) 박사도 ‘전법륜’을 읽어보라며 파룬궁을 추천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배우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아 그 기회를 놓쳤다.

레 씨는 ‘이번에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자리에서 투 박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파룬궁을 배우기로 했다. 투 박사의 도움으로 그녀는 다섯 가지의 공법 동작을 익히고, 매일 꾸준히 수련했다. 또한 ‘전법륜’을 읽으며 진선인(真善忍·진실·선량·인내)의 법리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자신의 언행을 바로 세웠다.

수련 후 심장병이 사라지다

파룬궁을 수련한 지 두 달이 지나자,

레 씨는 점차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정신 상태가 날로 좋아졌고, 수십 년 동안 그녀를 괴롭혀온 심장병이 어느새 가뭇없이 사라졌다.

인공 심장판막을 몸에 이식한 상태에서, 심장 전문의 레 씨는 어떠한 약물도 복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혈전 방지를 위한 항응고제조차 복용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이런 일은 현대의 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다.

그 후 레 씨는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되었고, 3~4층 계단을 오르는 것도 가뭇했다. 70세가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타고 세계 곳곳을 여행할 만큼 건강을 회복했다. 심각한 심장질환을 앓던 사람에게는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건강을 되찾은 레 씨는 단지 병만 나은 것이 아니었다. 인생의 희망을 되찾았고, 파룬불법(法輪佛法)의 법리가 그녀의 삶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다. 그 결과, 더욱 자신감 있고 밝은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

레 씨는 깊은 감동으로 이렇게 말했다. “파룬따파를 세상에 전해주신 창시자 리 홍즈 사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부님께서 제게 두 번째 생명을 주셨습니다.”





6년 동안 괴롭힌 만성 장염이 사라지다

명혜 기자 가오쓰위(高思羽)
스위스 취재 보도

스위스 여성 우르술라(Ursula)는 6년 동안 만성 장염으로 고통을 겪었다. 언제 어디서든 갑자기 화장실에 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마음 편히 외출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병을 고치기 위해 여러 가지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그 어떤 방법도 효과가 없었다.

2000년 4월, 파룬궁을 수련하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르술라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다른 방법도 다 소용없었는데, 그냥 한번 해보자.”

그녀는 친구와 함께 스위스 수도 베른의 파룬궁 연공장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다섯 가지 공법 동작을 배웠고, ‘전법륜(轉法輪)’ 책도 받았다. 그 후 일어난 일들은 그녀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였다.

집으로 돌아온 우르술라는 ‘전법륜’을 펼친 순간, 책에서 손을 뗄 수가 없었다. 책의 내용은 그녀를 사로잡았고, 그



▲ 스위스 여사 우르술라(왼쪽)와 친구

녀는 한 강의 한 강의를 쉽 없이 읽어 내려가 결국 300여 쪽의 책을 단숨에 완독했다. 마지막 장을 덮으며 그녀는 확신했다. “이 책은 내 정신의 양식이야!”

그녀는 또한 자신의 행동 중 고쳐야 할 점을 깨달았다. 병을 낫게 하려고 식물의 ‘에너지’를 흡수하곤 했는데, ‘전법륜’을 읽고 그것이 잘못된 행위임을 알게 되어 즉시 중단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곧바로 책을 두 번째로 읽기 시작했다.

열흘쯤 지나자 우르술라는 놀라운 변화를 느꼈다. 그토록 두려워하던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가야 할” 상황이 사라진 것이다. 6년 동안 그녀를 괴롭히던 만성 장염이 완전히 사라졌다.

‘전법륜’을 계속 읽으면서, 우르술라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으며, 성격도 한결 온화해졌다.

예전에 그녀의 상사는 기분이 나쁘면 이유 없이 우르술라를 꾸짖곤 했다. 주변 사람들조차 보기 힘들 정도였다. 그러나 우르술라는 담담히 받아들였다. ‘전법륜’에서 배운 것처럼, “때려도 맞받아치

지 않고 욕해도 대꾸하지 않으며” 늘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종종 동료의 업무를 대신하고, 이웃을 도와주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우르술라는 말했다. “‘전법륜’은 인생을 이끌어주는 책이에요. 어떻게 고난을 대하는지 알려 주고, 우리의 도덕성을 높여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해답

파룬궁은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인가요?

답: 파룬궁은 불가(佛家)의 수련법으로, 심성 수련을 중시합니다. 그 목적은 병을 고치는 데 있지 않으며, 오히려 심성 수련과 연공을 통해 자연스럽게 질병이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함이 없어야 스스로 얻을 수 있습니다.

파룬궁은 질병과 업력(业力)을 어떻게 보나요?

답: 파룬궁에서는 업력(业力)이 질병의 근본 원인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심성 제

고와 연공을 통해 업력이 소멸되어 몸이 정화되어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얇은 층차에서 볼 때 전통 한의학의 “정기(正气)가 충만하면 사(邪)가 침범하지 못한다”는 개념과도 유사합니다.

파룬궁은 약을 먹는 것을 금하나요?

답: 파룬궁의 모든 서적을 살펴봐도 “약을 먹지 말라”는 문장은 없습니다. 약을 먹을지 말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입니다. 많은 수련자가 파룬궁을 배우고 수련하면서 몸이 건강해져 약이 필요 없게 되었지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먹는 수련생도 있습니다.



94세 캐나다 노인의 활력 비결

명혜 캐나다 기자팀 보도

캐나다 퀘벡의 헨리·폴·베넷(Henry Paul Bennett) 씨는 올해 94세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정신이 맑다. 그는 매주 친구 몇 명과 함께 식당에서 모임을 한다.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물었다. “우리 중에 당신이 제일 연세가 많은데, 어째서 우리보다 더 활력이 넘치죠? 비결이 뭐니까?” 베넷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비결은 바로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예요.”

7~8년 전쯤, 베넷 씨는 처음으로 ‘전법륜(轉法輪)’을 읽게 되었다. 정성껏 읽은 뒤 그는 가족들에게 말했다. “이 책은 정말 좋아!” 그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일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할 때 한 동료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몇 년 뒤 다시 만났을 때 그를 꾸짖었던 일이다.

하지만 ‘전법륜’을 다 읽은 뒤 그는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직접 그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 상대는 무척 기뻐했고, 두 사람은 오해를 풀고 화해했다. “이것이 바로 ‘전법륜’



▲ 캐나다 94세의 베넷 씨(왼쪽)가 손녀와 함께 지역사회에 파룬궁 홍법(弘法) 행사에 참여한 모습.

이 나에게 가르쳐준 대로 한 겁니다.” 베넷 씨는 말했다. “이 책은 ‘심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타인을 대하고, 어떻게 남을 해치지 않는지 설명해줍니다.”

예전의 베넷 씨는 늘 기침을 했고, 머리도 자주 아팠다. 얼음 위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친 적이 있었는데, 의사들도 완전히 치료하지 못했다. 그러나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그의 기침과 두통이 거의 사라졌다. 올해 94세인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전법륜’을 읽고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이 나에게 힘을 줍니다. 그 덕분에 지금도 이렇게 정정하게 살고 있죠.”

지금 그는 매일 저녁 손녀와 전화로 함께 ‘전법륜’을 읽는다. 그는 “이 책을 읽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고 말한다. 게다가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기억력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





수많은 사람에게 복을 가져다준 기이한 책

“전법륜(轉法輪)”은 파룬궁 창시자 리홍쯔(李洪志) 선생이 제자들의 수련을 지도하는 주요 저작으로, 우주·시간·인생의 비밀을 풀어주며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다. 이 책을 통해 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심신이 정화되고, 도덕이 회복되었다.

1996년(파룬궁 박해가 시작되기 전), “전법륜”은 《베이징청년보》·《베이징만보》·《베이징일보》 등 여러 매체에서 “베이징시 베스트셀러 도서”로 여러 차례 선정되었다.

2004년 12월, 호주 ABC 방송국은 “전법륜”을 “호주에서 가장 사랑받는 100권의 책” 중 하나로 선정했으며, 14위에 올랐다. 이 순위에서 “전법륜”은 동양의 불법(佛法) 수련에 관한 유일한 저서였다.

현재 “전법륜”은 영어·불어·독어·한국어 등 5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100여 개국 이상에서 출판·배포되고 있다. 국적과 인종을 초월해, 전 세계 파룬궁수련자가 매일 읽는 고전으로 자리 잡았다.

◀ ‘전법륜’을 읽고 있는 서양인 수련생.





세상을 널리 이롭게



▲ 2025년 7월 19일, 독일 파룬궁수련자들이 뒤셀도르프(Düsseldorf)에서 박해 반대 집회를 열었다.

유럽 정치인들 “진선인(眞·善·忍)은 매우 중요하다”

명혜망 종합보도

1999년 7월 20일,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전면적인 박해를 시작했다. 이번 세기 최대 규모의 인권 참사는 26년째, 4반세기가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파룬궁수련자들은 진상을 알리고 평화적으로 박해에 맞서 온 26년의 길을 걸어왔다.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파룬궁을 지지하며, 진선인(眞善忍·진실·

선량·인내)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중공의 잔혹한 박해를 규탄하고 있다. 다음은 유럽 각국 인사들의 지지 발언 중 일부이다.

영국 정부, 파룬궁에 공식 서한 — 신앙의 자유와 선원(神韻) 공연 지지

7월 16일, 파룬궁 박해 26주년을 앞둔 시점에, 영국 파룬따파학회는 영국 외교부 인도-태평양 담당 국무장관 캐서린 웨스트(Catherine West) 의원으로부터 총리를 대표한 공식 답신 서한을 받았다. 영국 정부는 이번 서한을 통해, 신앙의 자유 수호와 국경을 넘은 억압 행위에 대한 단호한 거부 입장을 다시 한



▲ 영국 외교부 인도·태평양 담당 국무장관 캐서린 웨스트가 총리를 대표해 파룬따파학회에 서한을 보냈다.

번 명확히 밝혔다.

웨스트 장관은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어떤 외국 세력이라도 영국 내에서 개인이나 공동체를 협박하고 괴롭히거나 해치는 행위는 심각하게 다루어질 것이며,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서한을 통해 정부가 파룬궁수련자, 선원예술단 배우, 그리고 관객들의 안전과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보다 앞서, 영국 내무부 관계자들도 또한 파룬궁수련자와 선원예술단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스위스 38명 의원, 파룬궁 지지와 연대 표명

2025년 7월, 스위스의 총 38명 의원

(연방의원 9명, 주와 시의원 29명 포함)이 파룬궁수련자들에게 영상 메시지와 서한을 보내며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그들은 중국에게 즉시 파룬궁 박해 중단과 해외 탄압 중지를 촉구했다.

스위스 연방의원 다니엘 소르마니(Daniel Sormanni)

는 영상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진·선·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26년 동안 박해를 받을 대로 받았습니다! 나는 중국 정권에 요구합니다. — ‘진·선·인’을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탄압을 즉시 멈춰야 합니다.”



독일 정치인 14명 파룬궁 지지, 유럽의원 “미국 파룬궁보호법 통과, 유럽도 따라야 한다”

2025년 7월, 독일의 파룬궁수련자들은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뮌헨, 함부르크 등 여러 도시에서 평화로운 박해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에 독일 정계 인사 최소 14명이 파룬궁을 지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중 유럽의회 의원 미하엘 게엘러



(Michael Gahler)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미국 의회는 이미 ‘파룬궁 보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다른 민주 국가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박해에 가담한 개인을 식별해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입국을 금지하거나 해외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럽 또한 파룬궁수련자와 다른 신앙인들에 대한 박해에 유사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독일 헤센주 의원 올리버 슈티어벡(Oliver Stirböck)은 인터뷰에서 1989년 동독의 평화혁명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1989년 동독의 평화혁명은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의 공산 정권이 더는 국민과 맞서 싸울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중국인이 걷고 있는 ‘중공 탈퇴(당·단·대 조직에서의 탈퇴)’의 길은 바로 그런 평화로운 저항의 한 형태이며, 독재 체제에서 벗어나려는 매우 고무적인 움직임입니다.”

체코 상원, “진선인의 신앙은 인류 전체의 정신적 자산”

7월 17일과 18일, 체코의 파룬따파 수련자들은 촛불 추모 행사와 공개 집회를 열어, 중공의 26년에 걸친 파룬궁 박해를 규탄했다.

이와 관련해, 체코 상원 부의장 이트카 세이트로바(Jitka Seitlová)는 체코 상원을 대표해 파룬궁수련자들에게 공식 지지 서한을 보냈다.



그는 서한에서 이렇게 밝혔다. “다른 사람의 사상과 신념을 조종하려는 모든 시도는 인류와 인성(人性)에 대한 범죄입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은 사실, 여러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켜온 신앙은 단지 개인의 자산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소중한 정신적 유산입니다.”





한의학가 전하는 건강과 수양 비결

명혜 타이완 기자 취재 보도

▶ 타이완 왕진뒤 의사.



왕진뒤(王金铎) 박사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던 한약방에서 심부름 하며 자랐다. 그 영향으로 자연스레 한의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대학에서는 항공공학을 전공했지만, 한의학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못해 다시 의약대학에 진학해 한·양의학 두 가지 전문 자격을 갖춘 의사가 되었다.

왕 씨는 이후 타이완의 여러 대형 병원 에서 주치의로 근무한 뒤, 현재는 타이난(台南)에서 자신의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20년 전, 왕 씨는 처음으로 파룬궁 소개 글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전법륜(转法轮)” 책을 구해 단숨에 완독했을 때, “마치 머리에서부터 온몸을 관통해 따뜻한 기운이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그날 이후 그는 파룬궁 수련의 길에 들어섰다.

바쁜 진료 업무로 늘 피곤함을 느끼던 왕 씨는 매일 집에서 개인 수련을 하는 것 외에, 매주 한 번은 연공(炼功)장에 나가 단체 연공에 참여했다. 그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의 피로가 사라지고 “몸이 한결 가볍고 편안해졌다”고 말했다.

왕 씨는 “전법륜”을 공부하며 사람이 가진 덕(德)이 많을수록 복(福)도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인생의 얻고 잃음이 자신의 덕이나 업력(业力)과 관련 있음을 알게 되자 “더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만족할 줄 알게 되었어요. 해야 할 일은 성실히 하지만, 마음은 훨씬 평온하고 가벼워졌습니다.”라고 말했다.

서양의학, 한의학 그리고 수련

왕 의사는 말한다. “한의학은 신전문화(神传文化)의 일부입니다. 예전의 한



의사들은 대부분 도가(道家) 수련인이었고, 그들의 의술은 도가의 수련 전통 속에서 전승된 것입니다. 의사가 되려면 먼저 자신을 닦아야 하고, 본성으로 돌아가야(返本归真) 비로소 의술이 향상되어 환자에게 진정한 복을 줄 수 있습니다.”

파룬궁을 수련한 뒤, 왕진되는 한의학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졌다고 한다. “파룬궁을 배우고 나서 치료 효과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바깥에서 빠른 치료법만 찾으려 했지만, 이제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심으로 환자에게 집중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제 의술이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우리의 몸은 세 가지 에너지 체계가 있는데. 첫째는 물질적 신체, 둘째는 경락(经络) 에너지 체계, 셋째는 마음(心灵)의 에너지 체계”라고 여겼다.

그는 병이 든다는 것은 몸이 조화롭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서양의 학은 보통 물질적인 몸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 몸은 여전히 부조화 상태에 있다. 한의학 치료는 몸의 두 번째 에너지 시스템을 조화시키는 것을 통해, 신체의 불편함을 완화하는 것이다.

파룬궁 수련은 이 두 가지를 훨씬 뛰어



▲ 왕진된 의사 선생이 환자에게 진료하는 모습.

넘었다. 파룬궁은 병을 고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높은 층차의 수련방법이다. “그러나 동시에 수련을 통해 몸의 기운이 강화되고, 막혀 있던 경락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질병이 치유되는 현상도 일어난다.”

현대인을 위한 최고의 건강 비결

왕진되는 고서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말했다. “정기(正气)가 내면에 충만하면 사(邪)기가 침범하지 못하고, 정신이 안으로 지켜지면 질병이 어디에서 오겠는가. 많은 사람이 병에 걸리는 이유는 정기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파룬궁을 수련하며 진선인(真善忍·진실·선량·인내)을 따르는 것은, 의학적으로 보아도 현대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양생(養生)의 길이며 ‘진·선·인’은 가장 순정하고 고귀



한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밝혔다.

올해 64세인 왕진뒤는 온화하고 진실한 인품으로,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 그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권한다. “파룬궁은 현대인에게 가장 잘 맞는 고대의 수련법입니다. 생활 방식을 바꿀 필요도 없고, 채식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평소처럼 일하고 생활하면서, 하루 중 잠시 시간을 내어 법을 배우고 연공하면 됩니다. 누구나 수련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4년 전부터 왕 씨는 한 대학 교수와 함께 전문가의 시각에서 파룬궁 수련 후 얻은 신체적·정신적 변화를 주제로 공동 강연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타이완 전역에서 55회 이상의 강연을 진행했으며, 그 발걸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왕 의사의 통계에 따르면, 강연이 끝난 뒤 평균 10명 정도가 ‘파룬궁 9일 학습반’에 참여하여 법을 얻고 수련의 길에 들어선다고 한다. 이들 중에는 사회 각계의 전문가와 과학기술계 인사들도 많다.

왕진뒤는 말한다. “파룬따파는 내 생명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대법을 전하는 일은 내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대법의 아름다움을 나누고, 그들이 몸과 마음의 자유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파룬궁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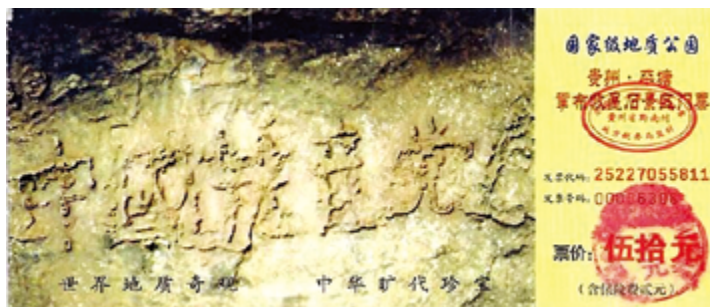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는 리홍쯔(李洪志) 선생께서 전하신 불가(佛家)의 상승(上乘) 수련대법으로 우주 최고 특성 ‘진선인(真·善·忍·진실·선량·인내)’을 근본 지도로 삼으며, 느리고 아름다운 동작의 5가지 공법이 있다.

파룬궁은 사람을 덕을 중요시하고 선(善)을 향하도록 가르치며 수련자에게 일상생활에서 진선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고 선량하며 관용하는 좋은 사람이 되며 끊임없이 자신의 도덕 수준과 경지를 향상할 것을 요구한다.

파룬궁은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데 뚜렷한 효과가 있다. 1998년 중국 국가 체육총국이 수련자 1만 2553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질병 완치 및 기본 회복률은 77.5%, 건강개선율 20.4%를 더하면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총유효율은 97.9%에 달했다.

현재 파룬따파는 세계 100여 개 나라에 전파됐고 수련자 수는 1억이 넘는다. 인류의 건강과 복지에 큰 공헌을 한 공로로, 파룬따파와 그 창시자 리홍쯔 선생은 세계 각국의 정부, 의회, 그리고 정계 인사들로부터 1만 3000건이 넘는 표창, 지지 결의안, 서신 등을 수여받았다.





◀ 구이저우성 평탕현의 억 년 전 ‘장자석(藏字石)’에는, 자연으로 형성된 번체와 간체가 섞인 여섯 글자 “中國共產黨亡(중국공산당 망)”이 새겨져 있다. 하늘이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4억 5천만 중국인 “삼퇴”로 평안을 찾다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九评共产党)》의 출간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각성을 이끌어냈다. 2025년 9월 16일 기준, 전 세계 탈당(退党) 웹사이트에서 “삼퇴(三退-중공의 3대 조직 탈퇴)” 선언을 한 사람은 이미 4억 5200만 명을 넘어섰다. 왜 이렇게 많은 중국인이 “삼퇴”를 선택했을까?

신뢰할 수 있는 참된 중국인이 되자

70여 년 동안 수많은 중국인이 속임수나 유혹, 혹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자신도 믿지 않는 공산주의 이념에 평생을 바치겠다고 “언제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충성 맹세’를 하도록 강제되었다.

하지만 “언약과 신의(信义)”는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 기준이다. 맹세

를 하면서도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더는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삼퇴”를 선언한다. 이는 양심과 도의(道义)에 따른 선택이다. 신의를 중시하는 중화의 후예로 살며 마르크스·레닌의 자손으로 살지 말아야 한다.

순장품이 되지 말고, 삼퇴로 평안을 찾자

중공이 정권을 세운 이후, 3반(三反), 5반(五反), 반혁명 진압, 반혁명 숙청, 대기근, 반우파, 문화대혁명, 64대학살, 파룬궁 박해에 이르기까지 정치운동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 결과, 비정상적인 사망자는 8천만 명 이상으로, 이는 1, 2차 세계대전 사망자 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

특히 지난 20여 년간, 중공은 진선인(真善忍-진실·선량·인내)을 따르며 선하게 살고자 하는 파룬궁수련자를 잔혹하게 박해해 왔다. 심지어 그들의 장기를 산 채로 적출하여 이윤을 챙기는 반인류

적 범죄를 저질렀다. 이 끔찍한 악행은 사람과 신 모두 분노하고 있다! 신불(神佛)은 반드시 그것을 청산할 것이다.

오늘날 중국은 전염병, 홍수, 지진 등 각종 재난과 사회 위기로 흔들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공산당이 저질러 온 악행의 결과이다. 지금 많은 깨어 있는 중국인들이 더는 공산당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지 않고 그것의 순장품이 되지 않으려고 너도나도 당·단·대 조직에서 탈퇴하며 자신과 가족의 평안을 지키고 있다.

나이로 인한 자동 탈퇴는 ‘삼퇴’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나이가 많아

져 자동으로 공청단과 소선대에서 탈퇴하거나, 혹은 중공 조직에 가서 탈퇴하는 것은 “공산주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맹세할 때 공산 사령이 다른 공간에서 찍은 “짐승의 기호(兽印)”를 지워버릴 수 없기에 아직 위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반드시 전 세계 탈당(퇴당) 웹사이트(<https://www.tuidang.org>)에 가서 삼퇴를 선언해야만 진정으로 평안을 지킬 수 있다!

신불은 오직 사람의 마음을 본다. 진심으로 “삼퇴”한다고 밝히면 실명(本名)은 물론, 가명(化名)이나 어릴 적 이름으로도 가능하다. 전 세계 탈당(三退) 웹사이트: <https://santui.tuidang.org> 



▲ 2025년 8월 23일, 영국 파룬궁수련자들이 런던의 대규모 행진과 집회에서 중공의 파룬궁 박해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4억 5천만 중국인의 당·단·대 조직 탈퇴를 함께 축하했다.



저명한 박사의 갑작스러운 죽음 슬픔과 깨달음

글 / 위화(毓华, 중국)

나는 한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2023년 7월, 우리 학교의 명망 높은 한 여성 박사 교수 A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재능이 뛰어나고 연구 성과도 탁월하여, 60대 초반에 이미 학문 분야의 선두 인물로 학교에 많은 명예를 안겨주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별세는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다.

얼마 전부터 중국과학원, 공정원(工程院)의 원사, 그리고 대학의 총장, 교수, 당 서기들이 연이어 세상을 떠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생각했다. “중공 편에선 이 엘리트들은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가!” 중국 인민대학교가 한 달 만에 부고 20건을 연달아 발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순간 ‘A 교수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스쳤다. 파룬따파 수련자로서, A에게 진실을 알려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A 교수의 죽음이 남긴 아쉬움

2022년 어느 일요일, 나는 직접 A 교

수의 집을 찾았다. 그녀와 남편은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A 교수는 자신의 학술 저서와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보여주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 피아노로 유명한 곡을 연주해 주었다.

대화 중, 내가 파룬따파의 진상에 대해 말했을 때 그들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탈당하고 평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오자 A 교수의 남편이 갑자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안 됩니다, 절대 탈당할 수 없습니다!” A 교수도 말했다. “그 일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들은 내 말을 더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이유를 알았다. 중공이 그녀를 자기 편으로 세우기 위해 그녀에게 너무나 많은 ‘영광’과 ‘칭호’를 주었고, 결국 그녀를 얹매는 족쇄가 되어 있었다.

A 교수의 갑작스러운 부고를 들었을 때, 내 마음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밀려왔다. 특히 지난 1년여 동안, 파룬따파 사부님이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왜 중생을 구도하려 하는가”라는 두 편의 중요한 경문을 발표하신 후에도 나는 그녀에게 전하지 못했고, 다시 한번 진상을 이야기하지도 못했다는 것을 떠올랐다. 그때 깨달았다. ‘유명인은 구하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나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다.



▲ 그림은 대법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과 진상 전단을 전하며, 진상을 알리고 선한 마음을 일깨우고 있는 모습을 묘사했다. 작자: 청풍(淸風).

오래된 친구에게 두 번 쫓겨나다

내 생각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九评共产党)》과 《대기원 엄중 성명》이 발표된 후, 나는 가장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부터 진상을 알리고 ‘삼퇴(三退-중공의 3대 조직 탈퇴)’를 권하기 시작했다.

B는 나와 5년을 함께 공부한 대학 동창이고, 졸업 후 같은 대학에 배정되어 교편을 잡았고, 수십 년 동안 절친한 사이였다. 똑똑하고 부지런한 그는 일찌감치 교수·박사·지도교수·학과의 주임이자 정부 지원금까지 받았다. 또한 중공의 중요 ‘통전(统战) 인물’로 지목되어 ‘인민대

표’, ‘시 정협위원’같은 영예로운 칭호를 부여받았다.

2007년, 나는 B의 집을 찾았다. 대화를 나누던 중 파룬궁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즉시 “그만 해!” 내가 계속 설명하려 하자 그는 즉시 “이제 그만 가게”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당혹감을 느꼈지만, 그를 탓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았다.

2015년 나는 다시 B의 집을 방문했다. 앉자마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오랜만에 와줘서 반갑네, 하지만 이번엔 우정 이야기만 하자고. 파룬궁 이야기는 하지 말게. 그렇지 않으면 또 무례하게 될지도 모르겠어.”

진심과 선의가 마음의 문을 열다

친구의 두 번의 거절, 여성 박사 지도교수 A를 찾아가 ‘삼퇴’를 권하다가 거절당했던 경험은 내 마음속에 ‘유명인은 구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굳히게 했다.

A 교수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나를 깨웠다. 유명인도 결국 사람이다. 그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나는 더 큰 자비심으로 진상을 전하고자 다짐했다.

그 후 나는 한때 피했던 지인들을 하나씩 찾아갔다. 대부분은 A 교수의 죽음을 이야기하며 ‘삼퇴’의 의미를 설명했다. ‘진심 어린 선의’는 결국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었다. 그리고 두 번이나 나를 내쫓았던 B 교수마저 진지하게 듣고 공청단과 소선대에서 탈퇴를 성명했다.

C 교수, “당신들은 착한 일을 하고 있군요”

어느 날, 나는 C 교수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한 대학의 학장과 박사 지도교수이다. 박사 지도교수 A의 갑작스러운 별세 이야기가 나오자 이렇게 말했다. “A의 상황은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녀는 박사생과 석사생을 포함해 학생들을 너무 많이 지도했어요. 사회 활동과 겸직도 너무 많았고, 공산당 관련 일에 너무 진지하게 매달리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볼 줄 몰랐죠.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한마디로 과로사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담겨있었다.

나는 1년 전 A 교수의 집을 찾아가 진실을 전했던 이야기를 전하며 중공의 파룬궁 박해 실상, 그리고 4억 명이 넘는 중국인이 삼퇴한 사실을 설명했다. C 교수 부부는 가명을 사용해 탈당하겠다고 동의했다. 그리고 내가 건넨 ‘진상 호신부(护身符)’를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때, C 교수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예전엔 당신들이 전단을 돌리고 전화하는 걸 보면서, 그냥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제 알겠네요. 당신들은 사람을 구하고 있었어요. 정말 착한 일을 하고 있군요!”

제일 능력이 있는 명인—오랜 상사 F

우리 학교의 전직 지도자 F는 내 마음속에서 언제나 가장 능력 있고 식견이 높은 분으로 자리하고 있어 그를 진심으로 존경해 왔다. 5년 전, 나는 F 선생님께 파룬궁의 진실을 전하고 구이저우에서 발견된 억 년 전 ‘장자석(藏字石)’ 영상도 함께 보여드린 적이 있다. 그는 내가 전한 내용을 모두 사실로 믿었고, 또 파룬따파는 좋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탈당 화제가 나오자 그는 “그건 좀 생각해 본 뒤에 이야기합시다.”라고 말했다.



2024년 봄, 나는 다시 F 선생님 댁을 방문했다. 안부 인사를 나누고 옛날 그가 학교를 이끌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가 만든 학교 교훈(校訓)에 대한 화제가 나왔다.

나는 말했다. “선생님이 정하신 그 여덟 글자의 교훈은 정말 훌륭합니다. 제가 파룬궁을 수련하고 나서 보니, 그 교훈이 바로 진선인(真善忍·진실·선량·인내)의 이치와 맞닿아 있었더군요.” 그러자 F 선생님은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셨다. “진·선·인이 뭐가 잘못됐나? 만약 그런 신념조차 탄압한다면, 그 탄압하는 자들은 자신을 어떤 위치에 놓는 건가?”

그 말에 나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선생님,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습니까?” F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렇지. 1999년부터 나는 그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 너무 어리석은

짓이지. 다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었을 뿐이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알겠네요. 선생님 내외분의 건강이 왜 그렇게 좋으신지! 거의 아흔이 다 되셨는데도 여전히 정정하시잖아요. 그건 처음부터 정(正)과 사(邪)의 싸움 속에서 정의의 편에 서셨기 때문이에요. 하늘이 보호하신 거죠.” F 선생님은 환하게 웃었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지금까지 4억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삼퇴’했습니다. 선생님 내외분께도 가명으로 삼퇴를 도와드릴게요.” F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좋아, 탈퇴하겠네! 고맙네, 정말 고맙네!” 그리고는 두 손을 모아 합장(合十) 하며 불가(佛家)의 예를 내게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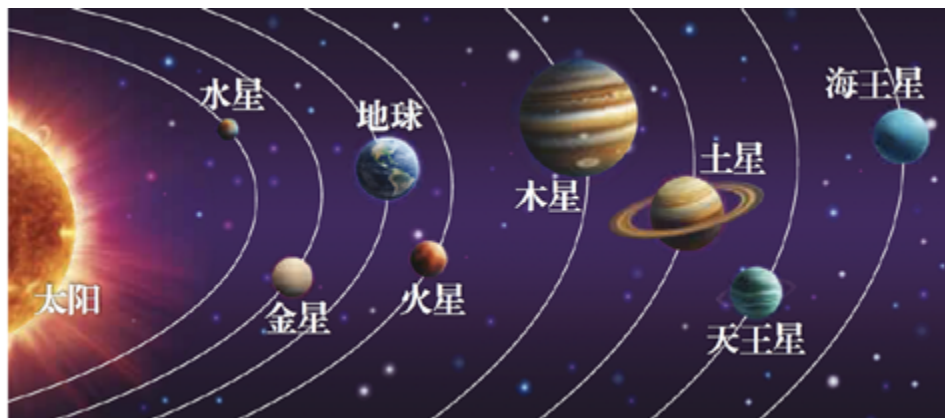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깊이 감동했다. “F 선생님이야말로 우리 학교에서 가장 총명하고 지혜로운 진정한 명인이다.” 



파룬궁수련자는 왜“삼퇴(三退)”를 권할까?



역사상 올바른 신앙과 정교(正教)를 박해한 세력은 모두 신(神)에 의해 도태되었다. 파룬궁에 대한 박해 역시 반드시 신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삼퇴(三退 — 중공의 3대 조직 탈퇴)”의 목적은 사람들이 중공의 통제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중공의 당·단·대 조직에 가입할 때 맹세했던 “공산주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독(毒)서약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하늘이 중공을 멸할 때” 그 죄악에 함께 끌려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선악에는 반드시 보응이 있다(善惡有報)”는 믿음에 근거한 것으로, 사람들을 재앙과 화(禍)에서 구하기 위해서이다.



뉴턴은 왜 신의 존재를 확신했는가

글/ 약수(若水)



뉴턴과 핼리의 이야기

아이작 뉴턴은 영국의 뛰어난 물리학자이자 수학자, 천문학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 중 한 사람이다. 그러나 중국인들에게는 덜 알려진 사실이 있다. 그는 지극히 신앙심이 깊은 유신론자였으며, 창조주가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고 굳게 믿었다.

그의 친구 에드먼드 핼리(Edmond Halley)는 영국의 저명한 천문학자였다. 그는 한 혜성의 궤도를 계산해 냈고, 훗

날 그 혜성은 그의 이름을 따서 “핼리 혜성”이라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핼리는 원래 무신론자로, 우주의 모든 것이 신의 창조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어느 날, 핼리가 뉴턴을 방문했을 때,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정교한 태양계 모형을 발견했다. 중앙에는 금 도금된 태양이 있었고, 그 주위에는 여러 행성이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었다. 손잡이를 한번 돌리면 각 행성이 자신의 궤도를 따라



조화롭게 회전하는 구조였다. 헬리는 그 모형을 오랫동안 살펴보다가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물었다. “이건 누가 만든 건가요?” 뉴턴이 대답했다. “아무도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재료들이 우연히 모여서 만들어졌을 뿐이죠.” 헬리는 즉시 반박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누군가가 만든 거고, 그것도 천재적인 사람이 만든 게 분명합니다.”

그때 뉴턴이 헬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 모형이 아무리 정교해도 진짜 태양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이 단순한 모형도 누군가 만든 것이라 믿으면서, 그보다 억만 배나 더 정교한 태양계는 전능한 신이 만들었다고는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헬리는 크게 깨달았고, 그날 이후 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

위대한 과학자들의 90% 이상은 신을 믿었다

중국 공산당은 무신론을 내세워 ‘신앙은 미신’이라 하고, ‘신앙과 과학은 대립된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속이는 어리석은 정책일 뿐이다. 사실, 인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위대한 과학자들 대부분은 신을 믿었다.

유엔이 진행한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300년 동안의 300명의 뛰어난 과학자 중 92.4%가 신의 존재를 믿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뉴턴, 아인슈타인,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퀴리 부인, 노벨, 에디슨, 파블로프 등이 포함된다.

“우주의 정밀한 운행, 누가 주재하는가?”

뉴턴은 이렇게 말했다. “태양계를 관찰해보면, 지구가 태양과의 거리를 정확히 유지해 생명에 알맞은 빛과 열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어찌 우연일 수 있겠는가!”

그는 또 말했다. “천체의 정교한 질서와 조화를 보면, 이는 전지전능한 고차원 존재의 작품임을 부정할 수 없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한 신이 반드시 존재한다. 나는 망원경의 끝에서 신의 흔적을 보았다.”

또 다른 위대한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역시 우주의 고도로 정돈된 질서와 조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창조주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여겼다. 그는 분명히 말했다. “나는 무신론자가 아니다.”

뉴턴은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오늘날의 과학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과학이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걸어치워라! 국민을 속이려는 자작극이잖아!”

글/ 여군(如君)

상식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 휘발유에 불이 붙으면 섭씨 500도 이상 올라간다. 500도는 고사하고, 100도 끓는 물에 손을 넣는다고 해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중공 중앙TV(CCTV)가 방송한 ‘텐안먼 분신자살’ 영상을 보면, 왕진둥(王进东)은 온몸에 화상을 입고도 말 그대로 “끄떡없이” 앉아 있다. 이걸 누가 믿을까?

어떤 시청자는 말했다. “요리하다 뜨거운 기름 한 방울만 팔에 튀어도 펄쩍 뛰는데, 분신이 진짜라면, 왕진둥은 텐안먼 광장에서 벌써 펄쩍펄쩍 뛰고 난리였을 거다.” 걸어치워라! 국민을 속이려는 자작극이잖아!

게다가, 왕진둥의 옷은 불에 타서 망가졌지만, 두 다리 사이에 있던 휘발유가 담긴 초록색 스프라이트 병은 새것



▲ 휘발유에 불이 붙으면 섭씨 500도 이상 올라가는데 왕진둥은 “끄떡없이” 앉아 있다. 이걸 누가 믿을까?

처럼 멀쩡하고, 타기 쉬운 머리카락도 그대로였다.

누군가 실험 해봤다. 휘발유가 들어있는 플라스틱병에 불을 붙이면, 5초 만에 병이 말랑해지고, 7초엔 모양이 변하고, 10초면 그냥 쪼그라든 덩어리가 된다. 왕진둥 다리 사이의 병은 무슨 특수 소재라도 되는 건가?

‘분신자살’은 갑작스러운 사건이라고 했지만, 중공TV 기자는 이 장면을 흔들림 없이 선명하게, 사건의 전개를 따라가며 촬영했다. 원경, 근경, 클로즈업까지 다 갖춘 고화질 영상, 이게 말이 되는가?

TV 전문가는 바로 한눈에 ‘연출된 장면’인 것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텐안먼은 최대의 영화 세트장이 됐다.”



식당의 변화 손님이 몰려든 이유



말했다. “그보다 먼저 공청단, 소선대에서 탈퇴해야 해요. 진정 좋은 사람이 되면, 깃발을 흔들지 않아도 손님이 스스로 찾아와요.” 그는 곧 바로 말했

[중국 동북 투고] 나는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가게 맞은편 도로변에는 작은 식당 두 곳이 있다. 그 둘은 늘 길가에서 차를 세워 손님을 끌어들이곤 했다. 어느 날, 한 식당 주인이 중공 깃발을 흔들며 손님을 부르는데, 아무도 그의 식당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화가 났다. “왜 내가 깃발을 흔들는데, 손님들은 다 저쪽 식당으로만 가는 거야?!”

그때 나는 말을 건넸다. “왜 그런지 제가 알아요.” 그가 물었다. “왜죠?” 나는 설명했다. “당신이 흔들는 건 중공의 깃발이에요. 요즘 어떤 운전기사라도 중공을 미워하죠. 힘들게 돈을 모아 차를 사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해 번 돈을 ‘위반’이라며 벌금으로 빼앗아 가잖아요. 운전기사들 대부분은 이미 탈당했어요. 당신은 그 깃발을 흔들고 있으니, 손님들은 ‘저긴 중공 가게구나’ 하고 피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누가 들어가 밥을 먹겠어요?”

그가 말했다. “그럼 내일은 깃발을 노란색으로 바꿔야겠네” 나는 웃으며

다. “어서 탈퇴시켜줘요.” 나는 그에게 파룬궁 진상과 ‘선악에는 반드시 응보가 따른다’는 이치를 설명하고, 진심으로 ‘法輪大法好(파룬따파하오-파룬따파는 좋습니다), 真善忍好(쩐싼런하오-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우면 복을 받는다고 권했다. 그는 모두 받아들였다.

며칠 뒤, 나는 그의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다. 놀랍게도 노란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그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아주머니, 장사가 잘돼요!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파룬따파가 좋다’고 믿었더니 진짜 복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말했다. “파룬따파 사부님께 감사드리세요. 사부님께서 ‘착한 사람이 되어 진실을 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 ‘삼퇴’를 하고 대법이 좋다고 믿으면 복을 받는가? 파룬따파는 불가(佛家)의 고덕(高德) 대법이다. 대법이 사악한 당의 박해를 받을 때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한 편에 설 수 있다면 매우 소중한 선택이다. 이런 사람은 신불(神佛)의 보호와 복을 얻게 된다. 



을사년 추석을 맞이하여, 전 세계의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 궁) 제자들과 대법(大法)을 지지하는 민중들이 잇따라 리홍쯔(李洪志) 대사께 중추절 문안 인사를 올렸다. 사진은 한 중국 인권 변호사의 축하 카드와 축하사이다.

리홍쯔 선생님, 추석 문안과 길상(吉祥)을 기원드립니다!

대법은 밝고 깨끗한 달처럼 중화대지를 널리 비취,
어둠 속을 걸어가는 중국인에게 앞길을 비취줍니다!

중국의 한 인권 변호사 올림.

봉쇄들과 소프트웨어 받는 방법

[PC 버전] <https://j.mp/fgp88>

[안드로이드 VPN] <https://j.mp/fgv88>

안내: 중국산 브라우저에서는 이 주소가 열리지 않을 수 있어 Edge, Chrome, 애플 Safari 등 브라우저를 권장합니다.